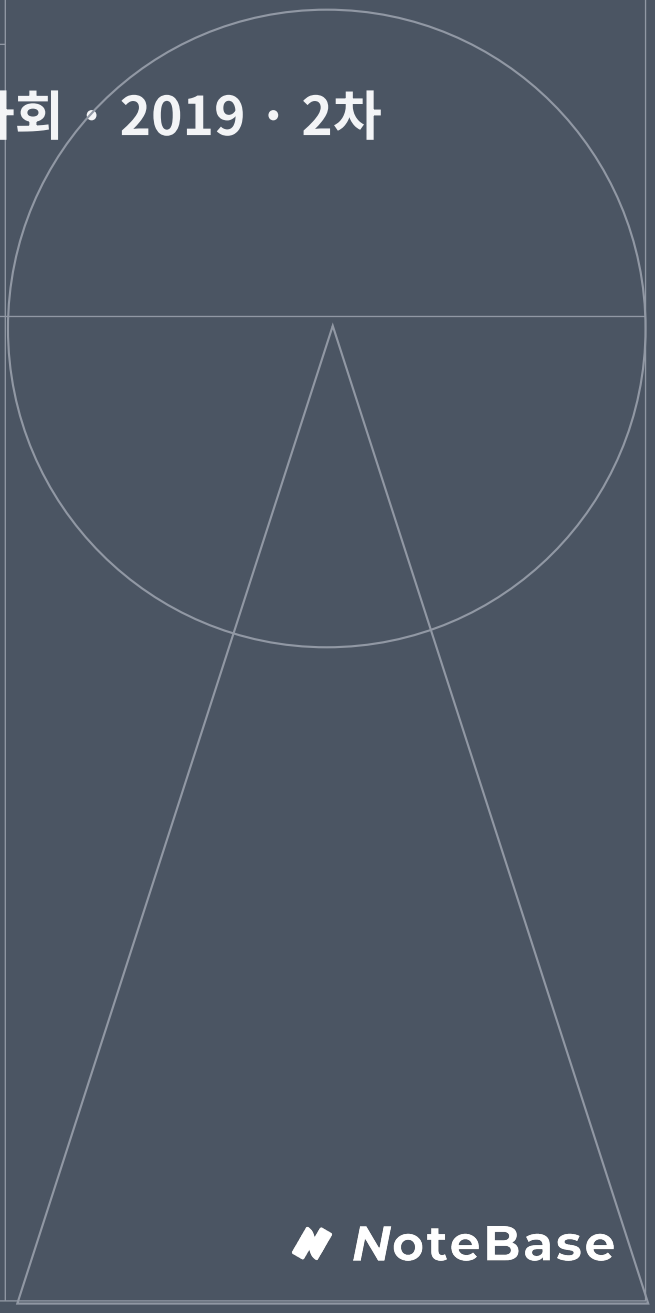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9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9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9 · 2차

문 1. 다음은 甲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밑줄 친 (가)~(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각종 사고·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경찰관이 많다. 甲은 이들의 (가) 자기탄력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경찰관들을 (나) A집단과 (다) B집단으로 나누고 자기탄력성에 대한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A집단에게만 (라) 수용전념치료를 6개월 동안 진행한 뒤에 다시 두 집단에게 자기탄력성에 대한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를 통해 얻은 (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甲은 (바) 수용전념치료가 자기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기>

㉠ (가)는 독립 변인, (라)는 종속 변인이다.

㉡ (나)는 실험 집단, (다)는 통제 집단에 해당되며 실험 처치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했다.

㉢ (마)는 (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얻은 질적 자료이다.

㉣ (바)는 인과관계 파악은 쉽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실험 연구에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구분하고 실험 결과의 인과관계 및 일반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독립 변인은 연구자가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작하는 변인이고, 종속 변인은 그 조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하는 결과 변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용전념치료 실시 여부가 독립 변인이고 자기탄력성이 종속 변인이다.
실험 집단은 실험 처치를 받는 집단이고, 통제 집단은 처치를 받지 않아 비교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설문 응답을 수치화하여 얻은 자료는 양적 자료이다. 실험은 변인을 통제하고 처치 효과를 비교하므로 인과관계 파악에 유리하지만, 특정 지역 경찰관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결과를 전체 경찰관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가)와 (라)의 역할을 뒤바꾸었으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라)의 수용전념치료 실시 여부가 독립 변인이고, (가)의 자기탄력성이 종속 변인이다. 따라서 ㉠과 ㉡의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② X — ㉠이 틀렸으므로 ㉠과 ㉣의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옳은 진술인 ㉡과 ㉣이다.
③ O — ㉡에서 A집단은 수용전념치료를 받은 실험 집단이고 B집단은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 집단이며, 두 집단 모두 처치 전후에 검사를 받았다. ㉣도 실험 처치 전후의 비교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쉽지만 특정 지역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옳다.
④ X — ㉢의 '질적 자료'가 틀렸다. 자기탄력성을 설문지 검사로 측정하여 분석한 (마)는 조작적 정의에 따라 얻은 양적 자료이다. 따라서 ㉢과 ㉣이 아니라 ㉡과 ㉣이 옳다.

오답 포인트

㉠은 연구 목적에 나온 '자기탄력성 향상'을 원인처럼 보이게 하여 변인의 역할을 혼동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자가 조작한 것은 치료 실시 여부이고 측정한 결과가 자기탄력성이다. 또한 설문지는 문항에 따라 질적 응답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연구처럼 자기탄력성을 검사하고 분석 가능한 수치로 측정한 자료는 양적 자료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자가 일부 집단에만 가한 처치를 독립 변인, 처치 뒤 변화를 측정한 대상을 종속 변인으로 구분한다. 처치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했다면 인과관계 파악에는 유리하며, 표본의 범위가 좁으면 일반화 가능성은 낮아진다.

암기 포인트

조작하는 것은 독립 변인, 측정되는 결과는 종속 변인이다. 실험은 인과관계에 강하고, 제한된 표본은 일반화에 약하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직장에서의 사회화 현상에 관련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사례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이다.)

○○지역 치안센터에는 새로이 센터장 甲이 전입하였다. 甲은 이전 센터장인 乙로부터 센터에 근무 중인 순경 丙이 丁보다 우수한 역량을 가졌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甲은 丙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졌으며, 丁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를 가졌다. 8개월 후 丙은 丁보다 우수한 업무역량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실은 乙이 甲에게 丙과 丁에 대해 뒤바뀐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보 기>

㉠ 丙과 丁은 乙보다 甲의 긍정적 기대와 격려를 통해 더 성장했다.

㉡ 丙과 丁은 乙보다 甲이 더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이다.

㉢ 丙과 丁은 甲과 乙의 기대와 규범에 영향을 받아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가 형성된다.

㉣ 丙과 丁은 甲과 乙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받아 '거울에 비친 자아(looking-glass self)'가 형성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타인의 기대가 실제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자기실현적 예언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의미 있는 타자·일반화된 타자·거울에 비친 자아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乙은 丙과 丁의 역량 정보를 뒤바꾸어 전달했지만, 甲은 그 정보를 믿고 丙에게 높은 기대를, 丁에게 낮은 기대를 가졌다. 8개월 뒤에는 甲의 최초 기대와 같은 방향으로 丙이 丁보다 우수한 역량을 보였다. 객관적 정보가 틀렸는데도 기대가 현실의 성과 차이로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자기실현적 예언은 처음의 기대나 믿음이 대상에 대한 상호작용을 바꾸고, 그 결과가 애초의 기대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긍정적 기대가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피그말리온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의미 있는 타자는 개인의 자아 형성과 사회화에 특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람이다.
일반화된 타자는 공동체나 집단이 공유하는 기대와 규범을 일반화하여 내면화한 것이다.
거울에 비친 자아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를 상상하고 그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자아이다.

NoteBase

적용 기준

사례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과 개념의 정의를 구분해야 한다. 甲의 높은 기대를 받은 사람은 丙뿐이므로 두 순경 모두가 긍정적 기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甲과 乙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한 의미 있는 타자인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 반면 직장 집단의 기대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일반화된 타자와,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은 거울에 비친 자아와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 ㉠의 '丙과 丁은 … 甲의 긍정적 기대와 격려를 통해 더 성장했다'는 표현은 丁이 낮은 기대를 받았다는 사례와 어긋나며, 乙보다 더 성장했다는 비교 근거도 없다. ㉡도 甲이 乙보다 두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의미 있는 타자라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 올바르게는 甲의 높은 기대를 받은 丙의 성과가 그 기대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甲과 乙의 상대적 중요성은 이 사례만으로 알 수 없다고 해야 한다.
② X — ㉢은 직장 집단의 기대와 규범을 일반화하여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므로 타당하지만, ㉠은 丁까지 긍정적 기대와 격려를 받았다고 보아 타당하지 않다. 올바른 조합은 ㉠㉢이 아니라 ㉢㉣이다.
③ X — ㉣은 타인의 생각과 판단을 의식하여 자아가 형성되는 거울에 비친 자아를 설명하므로 타당하지만, ㉠은 丙과 달리 丁이 낮은 기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올바른 조합은 ㉠㉣이 아니라 ㉢㉣이다.
④ O — ㉢은 甲과 乙을 통해 접한 직장 집단의 기대와 규범이 일반화되어 내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따라서 ㉢과 ㉣의 조합이 옳다.

오답 포인트

㉠은 사례에 기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丙과 丁 모두가 긍정적 기대를 받았다고 확대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은 상급자라는 사실만으로 甲을 乙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타자라고 단정하지만, 사례에는 두 사람의 영향력을 비교할 근거가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누가 어떤 기대를 받았는지 확인한 뒤, 기대가 결과를 같은 방향으로 바꾸었는지를 본다. 이어 구체적인 중요 인물은 의미 있는 타자, 집단 전체의 규범과 기대의 내면화는 일반화된 타자, 타인의 평가를 거울처럼 삼아 형성한 자아는 거울에 비친 자아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구체적 중요 인물은 의미 있는 타자, 집단의 공통 기준은 일반화된 타자,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거울에 비친 자아이다. 기대가 현실을 만들면 자기실현적 예언이다.

NoteBase

문 3. 다음은 일탈행동에 대한 각각의 원인 분석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 제> 보복 운전·폭행 사건 증가
<현 황>
운전 중이던 甲은 乙(20대, 무직)의 자동차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안전운전을 위해 경고음을 울렸다. 이에 乙은 자신의 차로 甲의 자동차를 가로막고, 甲을 폭행하였다. 당시 甲의 자동차에는 그의 처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었다.
<원 인>
(가)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좌절감에 사소한 갈등에도 폭력을 저지르는 청년이 증가합니다.
(나) 사람들이 온라인상의 폭력적인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정보를 얻고, 교통사고가 나면 폭력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문제아로 비난하고 소외시키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 책>
〔중 략〕
(라) 기초적인 교통질서부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 기>
㉠ (가)의 관점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나)의 관점은 비행 집단과의 교류로 인한 잘못된 사회화에서 일탈행동이 비롯된 것으로 본다.
㉢ (다)의 관점은 일탈행동 자체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적 낙인 과정에 주목한다.
㉣ (라)의 관점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의 핵심 관점을 사례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아노미 이론: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합법적·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가 일탈을 낳는다고 본다.
차별 교제 이론: 일탈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의 기술과 태도를 학습한다고 본다.
낙인 이론: 행위 자체보다 타인의 사회적 반응과 낙인이 이차적 일탈을 강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낙인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일탈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과 ㉡은 옳지만 ㉢이 틀렸다. ㉢의 잘못된 표현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적 낙인'이다. 낙인 이론은 객관적 기준보다 타인의 사회적 반응과 낙인 과정에 주목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② O
㉠은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강조하는 아노미 이론, ㉡은 비행 집단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차별 교제 이론, ㉣은 사소한 무질서의 방치가 더 큰 일탈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해당한다. 세 설명이 모두 옳다.

③ X
㉡은 옳지만 ㉢이 틀렸고, 옳은 ㉠과 ㉣도 빠져 있다. ㉢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반응과 낙인에 의해 일탈이 강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고 고쳐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④ X
㉣은 옳지만 ㉢이 틀렸고, 옳은 ㉠과 ㉡이 빠져 있다. ㉢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타인의 사회적 반응과 낙인에 의한'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이다.

오답 포인트

㉢은 낙인 이론이 일탈 행동 자체보다 낙인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은 맞지만, 낙인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표현한 부분이 함정이다. 낙인 이론은 무엇이 일탈인지를 사회적 반응과 상호 작용의 결과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표와 수단의 괴리'는 아노미 이론, '일탈 집단과의 교류·학습'은 차별 교제 이론, '사회적 반응·낙인'은 낙인 이론, '사소한 무질서의 방치'는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연결한다. 낙인 이론에 '객관적 기준'이 붙으면 틀린 표현인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괴리는 아노미, 교류는 차별 교제, 사회적 반응은 낙인, 무질서 방치는 깨진 유리창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은 경영학을 전공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가)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적성이 경찰에 잘 맞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경찰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2년이 지난 후 甲은 경찰 채용시험을 합격하여 현재 (나)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다. 甲은 비록 대기업보다 지금의 (다) 연봉이 적지만 그때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대기업을 그만두고 경찰관을 하지 않았다면 (라) 후회했을 것이다.

<보기>

㉠ (가)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보다 업무의 표준화를 강조하는 집단이다.

㉡ (나)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획득되는 지위이다.

㉢ (다)는 甲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 (라)는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로 인한 결과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식 조직과 관료제, 성취 지위와 역할 행동,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관계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식 조직은 정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위와 역할, 규칙과 절차를 갖춘 조직이다. 관료제의 업무 표준화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성취 지위는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지위이고, 역할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며 역할 행동은 그 기대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다.

소속집단은 자신이 실제로 속한 집단이고, 준거집단은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거나 소속되기를 바라는 집단이다. 두 집단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만이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틀리고 ㉡과 ㉣은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과 ㉢이 모두 틀렸으므로 옳은 진술의 조합이 아니다. ㉠의 틀린 부분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보다 업무의 표준화를 강조'한다는 표현이다. 대기업과 같은 관료제 조직은 업무를 표준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의 틀린 부분은 연봉을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 표현이다. 연봉은 역할 그 자체가 아니라 역할 행동, 즉 맡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② X — ㉡은 옳지만 ㉢은 틀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순경은 채용시험 합격과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 지위이다. 반면 연봉은 역할 자체가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므로 ㉢을 ㉣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된다.
③ O — ㉡과 ㉣이 모두 옳다. 순경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성취 지위이다. 또한 대기업에 계속 소속되어 있으면서 경찰을 준거집단으로 삼았다면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이 일치하지 않아 후회나 불만이 생길 수 있다.
④ X — ㉣은 옳지만 ㉢은 틀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연봉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를 '연봉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로 고쳐야 하며, ㉢을 ㉡으로 바꾸면 옳은 조합이 된다.

오답 포인트

㉠에서는 업무 표준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서로 대립하는 목표처럼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표준화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료제의 수단이다. ㉢에서는 '역할'이라는 기대와 그 기대를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 행동'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직 문제에서는 규칙·분업·표준화가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위한 장치인지 확인한다. 지위는 차지한 위치, 역할은 그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역할 행동은 실제 수행으로 구분한다. 소속집단과 판단 기준이 되는 준거집단이 다르면 불만이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표준화는 효율성의 수단, 순경은 성취 지위, 연봉은 역할 행동의 보상, 소속집단과 준거집단의 불일치는 불만의 원인이 된다.

NoteBase

문 5. 다음은 대중매체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당의 홍보를 담당했던 (가) 甲은 (나) 신매체인 SNS가 대중매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일찍이 간파했고, 대중매체가 (다) 대중을 선동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낸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甲은 사적 조직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SNS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파하였고, (라)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를 통하여 ○○정당의 활동을 계속 방송하여 대중의 인기를 사로잡았다.

<보기>

㉠ (가)에게 '미디어 수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 (나)는 (라)보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경계가 더 모호하다.

㉢ (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필요하다.

㉣ 맥루안(McLuhan, H. M.)은 (나)와 (라)가 (다)의 사고방식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SNS와 텔레비전의 매체 특성, 미디어 생산자와 수용자에게 필요한 태도, 맥루언의 매체관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NS는 이용자가 정보를 소비할 뿐 아니라 직접 생산·유통하기도 하는 신매체이므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비교적 모호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며 활용하는 능력이다. 맥루언은 매체의 형식 자체가 인간의 감각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므로 서로 다른 매체의 영향도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틀리고 ㉢은 옳다. 왜곡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생산·전파한 (가) 甲에게 필요한 것은 '미디어 수용자 교육'이 아니라 미디어 생산자의 윤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이다. (다) 대중에게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과 ㉣이 모두 틀리다. ㉠의 '미디어 수용자 교육'은 '미디어 생산자의 윤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으로 고쳐야 한다. 또한 맥루언에 따르면 SNS와 텔레비전처럼 형식이 다른 매체는 대중의 감각과 사고방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의 '동일한 영향'은 '서로 다른 영향'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과 ㉢이 모두 옳다. SNS에서는 이용자가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으므로 텔레비전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더 모호하다. 또한 왜곡된 메시지에 노출되는 대중에게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④ X — ㉡은 옳지만 ㉣은 틀리다. SNS는 텔레비전보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더 모호하다. 그러나 맥루언은 매체의 형식 자체가 인간의 감각과 사고를 형성한다고 보았으므로 ㉣의 '동일한 영향'은 '서로 다른 영향'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은 '㉡㉢'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은 甲도 넓은 의미에서 미디어 이용자라는 점만 보고 수용자 교육을 고르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사례에서 甲의 핵심 역할은 왜곡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전파한 생산자이다. ㉣은 맥루언이 모든 매체의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고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자의 역할부터 구분한다.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면 생산자 윤리, 정보를 받아 해석하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핵심이다. 매체 비교에서는 상호작용과 이용자 생산이 강한 신매체인지, 일방향 전달이 중심인 전통적 영상매체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SNS는 생산자·소비자 경계가 흐리고, 수용자에게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며, 맥루언에게 매체가 다르면 사고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시험에 관한 甲과 乙의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의 관점은 서로 다른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중 하나이다.)

경◯모 고민 게시판
경찰이 되고 싶은 대학생이에요. 영어를 못해요. 근데 경찰채용시험에서는 영어가 어려워요.ㅠㅠ 경찰은 영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영어를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Re: (甲)학교 다닐 때 많이 노셨군요ㅋㅋ.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영어도 경찰업무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어 점수가 부족하면 경찰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Re: (乙)그렇지 않아요.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영어성적이 낮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영어를 빈번히 사용하지 않는 일반 경찰까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 기>
㉠ 甲은 공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
㉡ 乙은 학교의 지식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평가한다.
㉢ 甲은 부르디외(Bourdieu, P.)의 교육관에 동조한다.
㉣ 乙은 교육 평등에서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교육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선발·배치로 보는 기능론과,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 및 지배집단의 문화 재생산에 주목하는 갈등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기능론: 교육은 사회 구성원을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선발하고 적절한 지위에 배치하여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교육 내용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이며, 공교육과 능력주의적 선발을 긍정한다.
갈등론: 교육은 가정 배경과 계층의 차이를 반영하고 지배집단의 문화와 이해관계를 정당화하여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본다. 학교 지식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甲은 영어 성적을 개인의 노력과 경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의 결과로 보므로 기능론, 乙은 가정형편에 따른 기회 차이와 시험 내용의 직무 관련성을 문제 삼으므로 갈등론에 해당한다.
㉠은 옳다. 甲은 공교육을 통한 능력주의적 선발을 정당한 것으로 보므로 공교육에 긍정적이다.
㉡은 옳지 않다. 乙의 갈등론은 학교 지식을 가치중립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乙은 학교의 지식이 지배집단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이다.
㉢은 옳지 않다. 부르디외는 문화자본과 문화적 재생산을 강조한 갈등론적 관점의 학자이므로 甲이 아니라 乙의 관점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乙은 부르디외의 교육관에 동조한다'이다.
㉣은 옳다. 乙은 출발 기회의 형식적 동일성만으로는 배경에서 비롯된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므로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갈등론자인 乙은 학교 지식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 아니라 '㉠㉣'이 올바른 조합이다.
② O — 기능론자인 甲은 공교육과 능력주의적 선발을 긍정하므로 ㉠이 옳고, 갈등론자인 乙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므로 ㉣도 옳다.
③ X — ㉡과 ㉢이 모두 옳지 않다. 乙은 학교 지식을 가치중립적이라고 보지 않으며, 부르디외의 교육관에 동조하는 쪽도 甲이 아니라 乙이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④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乙은 학교의 지식이 가치중립적이라고 평가한다'는 표현은 '乙은 학교 지식이 지배집단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이다.

오답 포인트

㉡의 '가치중립적'과 ㉢의 '甲'이 함정이다. 갈등론은 학교 지식의 중립성을 부정하며, 문화자본과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을 설명한 부르디외는 기능론자인 甲이 아니라 갈등론자인 乙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인의 능력·노력, 공정한 선발, 사회적 배치를 강조하면 기능론으로 판단한다. 가정 배경, 계층 격차, 지배문화, 불평등 재생산을 강조하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각 보기의 주체가 甲과 乙 중 누구인지 대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능력에 따른 선발과 기회의 평등, 갈등론은 계층 재생산과 결과의 평등이다.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은 갈등론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7. 다음은 甲~丙에게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자료>와 같이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유형	사례
A	甲(46세)은 기업에서 근무 중 현장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어 8주 진단을 받음
B	乙(57세)은 회사원으로 일하다 3년 전 퇴직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
C	丙(39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나 초등학생 자녀가 발달장애가 있음

<자 료>

질문	A	B	C
(가)	아니오	아니오	예
(나)	예	예	아니오

① (가)에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② (나)에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가?'가 적절하다.

③ A>B>C순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④ C>B>A순으로 제도 대상자의 비용 부담 비율이 높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례를 통해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구분하고, 각 제도의 지원 방식·비용 부담·소득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A는 사회보험이다. 근로 중 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B는 공공부조이다.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C는 사회서비스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 등의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핵심 대비는 '사회보험=보험료와 상호부조, 공공부조=조세와 최저 생활 보장, 사회서비스=비금전적 서비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A와 B에는 '아니요', C에는 '예'가 되는 질문이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아니요, 사회서비스는 예이므로 표와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공공부조인 B에도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 점이다. 공공부조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며, 사회보험인 A와 사회서비스인 C에는 수혜자의 비용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이라면 A와 C는 '예', B는 '아니요'가 되어야 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A>B>C순'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인 B가 가장 크고, 사회보험인 A, 사회서비스인 C의 순으로 크므로 B>A>C가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C>B>A순'이다. 제도 대상자의 비용 부담 비율은 사회보험인 A가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인 C, 공공부조인 B의 순으로 높으므로 A>C>B가 옳다.

오답 포인트

(나)의 A와 B가 모두 '예'라는 표만 보고 수혜자 부담 여부를 연결하면 틀린다. 공공부조는 수혜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소득 재분배 효과와 수혜자 비용 부담 비율은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례의 단서를 확인한다. 산업 재해·보험 급여는 사회보험, 최저 생활·소득 및 재산 기준은 공공부조, 상담·재활·돌봄은 사회서비스로 분류한다. 그다음 각 질문에 대한 예·아니요가 표의 열과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보험은 보험료, 공공부조는 조세,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 핵심이다. 소득 재분배는 공공부조가 가장 크고, 수혜자 비용 부담은 사회보험이 가장 크다.

NoteBase

문 8. 다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丙은 프롬(Fromm, E.), 후쿠야마(Fukuyama, F.), 포퍼(Popper, K.)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甲은 민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 일정한 영역 안에서 군사력을 독점하는 '국가', 권력이 일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A',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 권력을 배분하는 '책임정부'를 꼽았다.
乙에 의하면 전통적인 정치 질문은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또는 "누구의 의지를 따르는가?"였지만 현재는 "나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부 형태나 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丙은 '소유'하는 사회가 아니라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경제와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소유'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참여민주주의에 의해서 가능하며 'B'의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서도 참여민주주의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기>
㉠ 甲은 'A'를 '법치주의'라 하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접근했다.
㉡ 乙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체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 丙은 'B'를 '자유'라 하여 '존재'하는 사회를 추구했다.
㉣ 甲, 乙, 丙은 전문정치인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프롬·후쿠야마·포퍼의 민주주의론을 대표 개념과 연결하고, <보기>의 진위를 조합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甲은 후쿠야마이다. 후쿠야마는 민주 정치의 핵심 제도로 국가, 법치주의, 책임정부를 제시하므로 A는 법치주의이다.
乙은 포퍼이다. 포퍼는 누가 통치할지를 묻기보다 나쁜 통치자가 큰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정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丙은 프롬이다. 프롬은 소유 중심 사회에서 존재 중심 사회로 전환하려면 시민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민주주의가 권위주의의 위협에 맞설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B는 자유가 아니라 권위주의이다.
㉠과 ㉡은 옳고, ㉢과 ㉣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은 모두 옳다. 甲인 후쿠야마의 A는 법치주의이고, 乙인 포퍼는 나쁜 지배자의 폐해를 제한하는 정치 제도의 조직을 강조한다.
② X — ㉠은 옳지만 ㉢이 옳지 않다. ㉢의 틀린 표현은 ‘B를 자유라 하여’이다. 올바르게는 프롬이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권위주의의 위협에 저항하고자 했다고 해야 한다.
③ X — ㉡은 옳지만 ㉢이 옳지 않다. ㉢에서 B는 자유가 아니라 권위주의이므로, 옳은 조합은 ㉡·㉢이 아니라 ㉠·㉡이다.
④ X — ㉡은 옳지만 ㉣이 옳지 않다. ㉣의 틀린 표현은 ‘甲, 乙, 丙은 전문정치인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이다. 올바르게는 세 사람의 논의가 각각 민주주의의 제도적 조건, 나쁜 통치자를 통제하는 제도, 시민의 능동적 참여에 초점을 둔다고 해야 한다. 특히 프롬은 전문정치인의 지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프롬이 자유를 중시한다는 일반적 인상 때문에 ㉢의 B를 ‘자유’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위협에 저항한다’는 문맥에서 B는 민주주의가 맞서야 할 권위주의이다. 또한 포퍼의 제도 강조를 전문정치인 통치의 강조로 확대하면 ㉣에 속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법치주의·책임정부’는 후쿠야마, ‘나쁜 통치자의 해악을 제한하는 제도’는 포퍼, ‘소유에서 존재로·시민 참여·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은 프롬으로 연결한다. 각 ㄱ~ㄹ의 진위를 먼저 확정한 뒤 조합 선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후쿠야마는 국가·법치·책임정부, 포퍼는 나쁜 통치자를 막는 제도, 프롬은 존재와 참여민주주의이다.

NoteBase

문 9. 다음은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구분	특징
(가)	시민들은 최고 의결 기구인 민회에 모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법률 제정, 과세, 외교 등 국가의 중요 사안을 직접 결정하였다.
(나)	보통선거로 뽑힌 대표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형태는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인 □□□□ 등을 도입하였다.
(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고 시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대의 기구인 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재산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은 있었다.

<보 기>

㉠ (가)는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았다.
㉡ (나)의 □□□□는 국민 투표나 국민 소환이 해당된다.
㉢ (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하였다.
㉣ (가)와 (다)는 모두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의 정치 참여 방식과 시민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가)는 시민이 민회에서 국가의 주요 사안을 직접 결정한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나)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민 투표·국민 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다)는 자유와 평등, 사회 계약 사상의 영향을 받아 대의제를 확립했지만 재산 등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한 근대 민주 정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틀리고 ㉡은 옳으므로 ㉠㉡은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의 틀린 표현은 '(가)는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았다'이다.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은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인 (가)가 아니라 근대 민주 정치인 (다)이다. ㉡의 빈칸에는 국민 투표나 국민 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간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② X — ㉡은 옳지만 ㉢은 틀리므로 ㉡㉢은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의 틀린 표현은 '(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하였다'이다. 공동체의 정치 생활과 개인의 삶을 밀접하게 보아 양자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은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인 (가)이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③ O — ㉡과 ㉣은 모두 옳다. (나)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투표·국민 소환 등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현대 민주 정치이다. 또한 고대 아테네의 시민에는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고, 근대 민주 정치도 초기에는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가)와 (다)는 모두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였다.
④ X — ㉢은 틀리고 ㉣은 옳으므로 ㉢㉣은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은 '(가)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밀접하게 보았다'로 고쳐야 한다. ㉣은 고대 아테네와 근대 민주 정치에서 모두 여성의 참정권이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옳다. 올바른 조합은 ㉡㉣이다.

오답 포인트

직접 민주 정치라는 특징만 보고 (가)를 현대 민주 정치와 혼동하거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제시한 (다)를 곧바로 보통 선거가 완성된 시기로 판단하기 쉽다. (다)는 대의제를 채택했어도 재산과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 남아 있던 근대 민주 정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회에서 직접 결정하면 고대 아테네, 사회 계약·대의제·제한 선거이면 근대, 보통 선거를 바탕으로 대의제와 국민 투표·국민 소환을 함께 활용하면 현대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고대는 민회와 직접 정치, 근대는 사회 계약과 제한 선거, 현대는 보통 선거와 직접 민주주의의 보완이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정치 상황에 대한 기사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국과 乙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신문
甲국 행정부 수반,
의회에서 선출!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행복당'의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
□□신문
乙국 합격당 후보,
20대 표심으로 당선!
총선에 참패한 '합격당', 이번 대선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승리하여 행정부 장악
<보기>
㉠ 甲국의 행정부는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 甲국과 달리 乙국은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없다.
㉢ 乙국은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다.
㉣ 乙국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 소추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행정부 수반의 선출 방식과 행정부·의회의 관계를 근거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甲국은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되는 의원내각제이다.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성립하며 국정 운영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乙국은 의회 선거와 별도로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부 수반을 뽑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고, 행정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한다.

NoteBase

보기 판단

㉠ O: 의원내각제의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구성되므로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 X: 틀린 표현은 '乙국은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없다'이다. 대통령제에서도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 등의 수단으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 O: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다.
㉣ X: 틀린 표현은 '탄핵 소추할 수 없다'이다. 대통령제에서도 의회는 중대한 법 위반 등이 있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이 틀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② O: 옳은 설명인 ㉠과 ㉢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③ X: ㉢은 옳지만 ㉡이 틀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④ X: ㉡과 ㉣이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오답 포인트

대통령제의 권력 분립을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의 '견제할 수 없다'와 ㉣의 '탄핵 소추할 수 없다'가 함정이다. 권력 분립은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면서도 상호 견제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회 다수당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되면 의원내각제, 의회 선거와 별도의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뽑으면 대통령제로 판단한다. 이어 의원내각제는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 대통령제는 임기 보장과 행정부·의회의 상호 견제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의원내각제는 의회 신임과 책임, 대통령제는 별도 선출과 임기 보장, 두 정부 형태 모두 견제 장치를 둔다.

NoteBase

문 11. 다음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법은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근대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법이 공법에서 분리되었다.

④ 경제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사회법의 성립 배경과 주요 영역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근대 시민법의 공법·사법 분리와 현대 사회법의 등장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적 생활관계에 공법적 규제를 결합한 법 영역이다.

핵심 구분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면서 공법과 사법이 구별되었다. 이후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면서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과 같은 사회법이 발달하였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회법의 대표적 영역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다. 노동관계의 보호, 시장질서의 규율,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각각 담당한다.

② O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X —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이 공법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사법이 공법에서 분리되었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공법적 원리가 사법 영역에 개입하면서 사회법이 발달하였다'이다.

④ O — 경제법은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사회법 영역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공법과 사법의 분리가 사회법의 등장 원인인 것처럼 서술한 점이 함정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근대 시민법의 특징이고, 사회법은 그 구별이 완화되어 공법적 규제가 사법 영역에 개입한 결과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법의 성립 배경을 묻는 경우 '국가의 사적 영역 개입'과 '공법·사법의 융합'을 핵심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법이 공법에서 분리되었다'라는 표현은 근대 시민법의 특징과 사회법의 성립 과정을 뒤섞은 것이다.

암기 포인트

사회법은 노동법·경제법·사회보장법이며,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대응한 공법적 개입의 산물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기본권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 (가)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② 실정법이 없더라도 자연법적으로 인정된다.

③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④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구제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의 성격과 구체적인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청구권은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행위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기본권이다.

핵심 구분

청구권은 국가에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수단적 권리이며,
청원권·재판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사회권의 성격이다.
틀린 표현: 청구권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올바른 표현: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② X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나 구제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다.
틀린 표현: 실정법이 없더라도 자연법적으로 인정된다.
올바른 표현: 청구권은 헌법과 법률 등 실정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보장된다.

③ X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며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청구권은 국가에 구제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수단적 권리이다.
틀린 표현: 청구권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올바른 표현: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며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④ O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구조를 요구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청구권에 속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최소한의 생활 조건'은 사회권, ③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는 자유권의 표지이다. 기본권이 침해된 뒤 국가에 구제를 요구하는 수단이라는 지문을 놓치면 세 기본권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의 간섭 배제는 자유권, 인간다운 생활 조건의 보장은 사회권, 국가에 재판·배상·보상·구조 등 구체적인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청구권은 청원·재판·형사보상·국가배상·범죄피해자구조처럼 국가에 구제를 청구하는 기본권이다.

NoteBase

문 13.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된다.
㉡ 주택 매매계약은 각자의 대리인을 통해서 체결할 수도 있다.
㉢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부 을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대리계약, 계약금에 의한 해제,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계약금 지급이 계약의 성립요건인지, 계약금 해제가 언제 가능한지, 소유권 등기가 어느 구에 기록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고, 물건의 인도나 금전의 지급까지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다.
해약금 =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계약금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금 지급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114조에 따라 권한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한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생긴다.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 해제는 다른 약정이 없고 어느 한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때에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의 틀린 표현은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된다'이다. 올바르게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며 계약금 지급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의 틀린 표현은 '등기부 을구'이다. 올바르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에 기록된다.
② X — ㉡과 ㉢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은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 다른 약정이 없고 어느 한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③ X — ㉡은 옳고 ㉣은 옳지 않으므로 두 항목이 모두 옳지 않은 조합이 아니다. ㉣은 '을구'를 '갑구'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④ X — ㉢은 옳고 ㉣은 옳지 않으므로 두 항목이 모두 옳지 않은 조합이 아니다. ㉢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면 아무 조건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약정이 없고 어느 한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올바른 조합은 ㉠과 ㉣이다.

오답 포인트

㉠에서는 계약금 지급을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오해하기 쉽고, ㉢에서는 '중도금 지급 전'만 보고 계약금 포기와 이행 착수 전이라는 조건을 놓치기 쉽다. ㉣에서는 갑구와 을구가 뒤바뀌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매계약 문제에서는 먼저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계약금 해제는 '다른 약정 없음·이행 착수 전·교부자는 계약금 포기'의 조건을 적용한다. 등기부 문제에서는 소유권이면 갑구,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이면 을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매매는 합의로 성립하고,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며, 소유권은 갑구에 기록된다.

NoteBase

문 14.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하는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로 나타낸다.

③ 대체재가 거의 없는 재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④ 기울기가 완만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른 수요 곡선보다 가격탄력성이 크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의미와 가격 변화가 판매자의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보통 절댓값으로 판단한다.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과 총수입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과 총수입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더 크므로 총수입은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자의 총수입이 감소한다'이다.
② O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로 나타낸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③ O — 대체재가 거의 없으면 가격이 올라도 다른 재화로 바꾸기 어려워 수요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④ O — 동일한 축척과 비교 조건에서 수요곡선이 완만할수록 같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더 크므로, 가파른 수요곡선보다 가격탄력성이 크다.

오답 포인트

1번은 가격이 오르면 단위당 판매수입이 늘어난다는 점만 보고 총수입도 증가한다고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총수입은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므로, 탄력적 수요에서는 판매량의 감소 비율이 가격의 상승 비율보다 커서 총수입이 감소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 변화와 총수입의 관계는 탄력성의 크기로 판단한다. 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총수입이 반대 방향이고,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같은 방향이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는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암기 포인트

탄력적이면 가격과 총수입은 반대로, 비탄력적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문 15. 노동시장과 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노동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②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③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임금인상으로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④ 기술혁신에 의해 낮은 기술 수준의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임금 변화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실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노동공급에서 임금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높여 대체효과로 노동공급을 늘리지만, 소득효과가 더 크면 노동공급이 줄 수도 있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임금 변화율에 대한 노동수요량 변화율의 민감도이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변화나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자의 기능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이 맞지 않아 발생하고, 마찰적 실업은 구직·이직 과정의 정보 탐색과 시간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는 인과관계이다. 임금 상승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면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는 감소하고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한다는 표현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실질임금 하락은 노동고용비용을 낮추므로 노동수요량을 증가시킨다.

③ O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임금이 일정 비율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이 그보다 큰 비율로 감소한다. 따라서 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크게 줄어 실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마찰적 실업'이다. 기술혁신으로 낮은 기술 수준의 기능인력 수요가 줄어 노동자의 기능과 일자리의 요구 조건이 불일치하여 생기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노동공급 감소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그 원인을 잘못 연결했다.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은 대체효과이므로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④는 기술 변화에 따른 기능 불일치인 구조적 실업을 단순한 구직 과정의 마찰적 실업과 바꾸어 제시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상승 문제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분리한다. 노동수요 문제에서는 임금과 노동수요량이 반대 방향임을 확인하고, 실업 유형은 '탐색·이직 과정'이면 마찰적 실업, '기술·산업 변화에 따른 기능 불일치'이면 구조적 실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은 노동공급 증가, 탄력적 노동수요에서 임금 상승은 고용의 큰 감소, 기술 변화에 따른 기능 불일치는 구조적 실업이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제정책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감소, 소비위축, 수출감소에 직면하여 기업은 경쟁력향상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사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개방경제로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된 A국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기업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이를 경기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乙: 세계경제의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의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소수의 기업에 자원이 집중된 경제구조와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개혁하여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에 취약한 A국의 체질을 개선시켜야 한다.
<보기>
㉠ 甲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임금 동결과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 甲과 乙은 모두 A국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乙은 甲보다 시장경제원리를 더 신뢰한다.
㉣ 乙은 甲보다 큰 정부를 선호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甲의 이윤 주도 성장 관점과 노동자의 소득 증대 및 분배 개선을 중시하는 乙의 임금 주도 성장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甲의 관점은 임금 등 기업 비용을 억제하고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입장이다.
乙의 관점은 노동자의 임금과 협상력을 높여 분배를 개선하고, 늘어난 가계소득과 소비를 바탕으로 성장을 촉진하려는 입장이다.
두 관점의 결정적 차이는 성장의 출발점을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에 두는지, 노동자의 소득과 내수에 두는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 O — ㉠과 ㉣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③ X — ㉡과 ㉢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④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O — 甲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장한다. 임금 동결은 노동비용 억제에, 생산성 증대는 경쟁력 향상에 해당하므로 甲의 입장과 부합한다.
㉡ X — 틀린 표현은 '甲과 乙은 모두 A국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이다. 노사 간 합의나 불평등한 노사관계의 개혁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A국에 이미 형성된 신뢰·규범·협력 관계인 사회적 자본을 높게 평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甲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乙은 노동자의 협상력·소득 증대와 경제구조 개혁을 중시한다고 해야 한다.
㉢ X — 틀린 표현은 '乙은 甲보다 시장경제원리를 더 신뢰한다'이다. 乙은 정부가 노동·복지 정책을 수정하고 자원 집중과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므로 정부 개입을 더 중시한다. 올바르게는 甲이 乙보다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원리를 더 중시한다고 해야 한다.
㉣ O — 乙은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 복지정책의 수정·보완, 경제구조와 노사관계의 개혁을 정부의 역할로 제시한다. 따라서 乙은 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甲보다 큰 정부를 선호한다.

오답 포인트

㉡에서는 '노사 간 합의'라는 말만 보고 곧바로 사회적 자본을 높게 평가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다. ㉢에서는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가 시장 기능의 강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乙의 핵심은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과 구조 개혁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업 비용 절감·생산성·수출 경쟁력이 중심이면 기업 수익성과 시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임금·가계소득·분배 개선·정부 개입이 중심이면 노동소득과 내수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판단한다. 그런 다음 <보기>의 각 진술을 따로 판정하고 조합 선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甲은 기업 경쟁력과 이윤, 乙은 노동소득과 분배 및 정부 개입이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甲과 乙의 세계화에 따른 경제통합에 대한 의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甲: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일본 전범 기업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법원의 보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이야. 우리나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WTO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제소할 뿐 아니라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해. 특히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을 확대시키고 일본과의 경제 상호의존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시급할 거야.
乙: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부당한 결정이었어. 하지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어.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하는 거야.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과학분야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기>
㉠ 甲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乙은 리카도(Ricardo, D.)의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보복조치와 대일무역의 적자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甲과 乙은 모두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경제보호주의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다.
㉣ 甲은 국제분업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乙은 국제경제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호무역적 대응과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의 차이를 甲과 乙의 주장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호무역적 대응은 국산화, 내수시장 확대, 대외 의존도 축소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입장이다.
비교우위 이론은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하고 교역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甲은 부품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 일본과의 상호의존성 감소를 강조한다. 반면 乙은 모든 부품의 국산화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국제분업을 활용하는 방향을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이 틀린 표현이다. 甲은 해외시장 개척이 아니라 내수시장 확대와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감소를 강조한다.
②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乙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한다는 주장은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국제분업의 논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甲과 乙 어느 쪽도 경제보호주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만 옳고 ㉢은 틀리다.
③ O — ㉡과 ㉣이 모두 옳다. 乙은 비교우위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경제보복과 대일 무역 적자 문제에 대응하려는 입장이다. 甲은 국산화와 대일 의존도 축소를 강조하므로 국제분업의 축소를 지향하고, 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와 교역을 중시하므로 국제경제협력의 확대를 지향한다.
④ X — ㉣은 옳지만 ㉢은 옳지 않다. 두 사람은 경제보호주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공통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을 제외하고 ㉡과 ㉣을 고른다.

오답 포인트

甲의 '내수시장 확대'를 '해외시장 개척'으로 바꾸어 읽거나, 乙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럼 甲과 乙의 공통 견해를 만들어 내기 쉽다. 지문에 없는 국내 고용 효과를 두 사람의 공통 주장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산화·내수 확대·대외 의존 축소는 보호무역과 국제분업 축소로, 잘하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특화·교역은 비교우위와 국제분업 확대로 연결한다. 공통 견해를 묻는 문장은 두 사람의 발언에 모두 근거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甲은 국산화·내수·의존 축소, 乙은 비교우위·선택과 집중·국제분업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甲국과 乙국의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지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국가의 총공급 곡선의 형태는 동일하다고 가정함)

이자율(%)	1.50	2.00
甲국의 투자지출(원)	200조	190조
乙국의 투자지출(원)	100조	90조

<보기>

㉠ 경기침체 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 효과는 甲국이 乙국보다 크다.

㉡ 기술변화의 공급충격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甲국이 乙국보다 크다.

㉢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甲국과 乙국이 동일하다.

㉣ 경기침체 시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는 甲국보다 乙국이 크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표에서 투자지출의 이자율탄력성을 비교하고, 그 차이가 재정정책·통화정책 및 공급충격의 파급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이자율이 1.50%에서 2.00%로 동일하게 상승할 때 甲국의 투자는 200조 원에서 190조 원으로, 乙국의 투자는 100조 원에서 90조 원으로 각각 10조 원 감소한다. 절대 감소액은 같지만 감소율은 甲국 5%, 乙국 10%이므로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乙국이 더 크다.

사용할 공식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의 크기는 $\leq$ft|투자지출의 변화율이자율의 변화율|로 비교한다. 두 나라의 이자율 변화율이 같으므로 투자지출의 변화율만 비교하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甲국의 투자 감소율: $\frac{10}{200} \times 100 = 5\%$
乙국의 투자 감소율: $\frac{10}{100} \times 100 = 10\%$
따라서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乙국이 甲국보다 크다. 투자 반응이 큰 乙국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가 커서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금리 하락을 이용하는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기술 진보와 같은 긍정적 공급충격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통화량 증가와 금리 하락을 거쳐 투자가 늘어나는데, 이 반응도 투자 탄력성이 큰 乙국에서 더 크다.

선지 판단

① X — ㉠은 옳지만 ㉡은 틀리다. 乙국의 투자지출이 이자율에 더 민감하므로 기술변화의 공급충격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甲국보다 乙국에서 더 크다. 따라서 ㉠㉡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② X — ㉡과 ㉣이 모두 틀리다. 공급충격의 총수요 파급 효과는 乙국이 더 크며, 투자의 이자율탄력성도 두 나라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乙국이 더 크다.
③ X — ㉢은 옳지만 ㉣은 틀리다. 두 나라의 투자 감소액은 10조 원으로 같아도 감소율은 甲국 5%, 乙국 10%이므로 투자 이자율탄력성은 동일하지 않다. 올바르게는 '乙국의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甲국보다 크다'이다.
④ O — 甲국은 투자 이자율탄력성이 작아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의 구축효과가 작으므로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 반대로 乙국은 금리 하락에 대한 투자 반응이 더 크므로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은 ㉠㉢이다.

오답 포인트

두 나라에서 투자가 모두 10조 원 감소했다는 이유로 탄력성이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탄력성은 절대 변화액이 아니라 기준 투자액에 대한 변화율을 비교하므로, 100조 원에서 10조 원이 감소한 乙국의 반응이 더 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동일한 금리 변화에 대한 투자지출의 변화율을 구해 투자 이자율탄력성을 비교한다. 그다음 '투자 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커지고, 통화정책과 금리 경로를 통한 충격의 효과는 커진다'는 방향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투자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작고, 통화정책 효과는 크다.

NoteBase

문 19. 다음 경상수지와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상수지는 국내저축에서 국내투자를 차감한 금액과 같다.
㉡ 외국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수입은 경상계정의 대변에 기록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자금의 지급은 자본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 국내재화의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시장에서 외국통화의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하락한다(원화의 가치 상승).
㉣ 국내와 외국의 금융자산이 완전대체재이고 현재 환율이 변함없을 경우, 국내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보다 높으면 원화의 기대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상수지와 국내저축·국내투자의 관계, 국제수지의 복식부기, 수출과 환율의 관계, 이자율평가 조건을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O: 경상수지는 국내저축에서 국내투자를 뺀 값이므로 $CA = S - I$이다.
㉡ X: 상품 수입은 경상계정의 차변에 기록된다. 수입대금을 외화로 지급하여 대외자산인 외화자금이 감소하는 대응 거래는 자본·금융계정의 대변에 기록된다. 따라서 '상품수입은 대변, 외화자금 지급은 차변'이 아니라 '상품수입은 차변, 외화자금 지급은 대변'이다.
㉢ O: 국내재화의 수출이 늘면 외국인이 수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국통화를 공급하고 원화를 수요한다. 그 결과 외국통화 표시 환율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 X: 국내외 금융자산이 완전대체재이면 이자율평가가 성립한다. 현재 환율이 일정할 때 국내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보다 높다면 그 차이를 상쇄하도록 미래의 원/외국통화 환율은 현재보다 높아져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화의 기대환율은 하락'이 아니라 '원화의 기대환율은 상승'이 올바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은 국제수지의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서술하였다. '㉠㉡'이 아니라 옳은 조합은 '㉠㉣'이다.
② O: ㉠의 $CA = S - I$ 관계와 ㉣의 수출 증가에 따른 외국통화 공급 증가·환율 하락이 모두 옳다.
③ X: ㉡은 상품 수입과 그 대금 지급의 차변·대변을 뒤바꾸었고, ㉢은 국내 이자율이 더 높을 때의 기대환율 방향을 반대로 서술하였다. '㉡㉢'이 아니라 옳은 조합은 '㉠㉣'이다.
④ X: ㉣은 옳지만 ㉢의 '기대환율은 하락'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기대환율이 상승하여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아니라 옳은 조합은 '㉠㉣'이다.

오답 포인트

㉡에서는 실제 외화가 국외로 지급된다는 현금 흐름만 보고 자본·금융계정의 차변으로 판단하기 쉽다. 국제수지는 복식부기로 기록하므로 상품 수입은 차변이고, 지급에 따른 대외자산 감소는 대변이다. ㉢에서는 높은 국내 이자율을 곧바로 원화 강세와 연결하기 쉽지만, 완전대체 조건에서는 높은 이자율의 이익을 상쇄하는 원화의 기대절하가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상수지는 $CA = S - I$로 확인한다. 국제수지는 실물거래와 대응 금융거래를 차변·대변에 반대로 기록한다. 수출 증가는 외국통화 공급 증가로 환율을 낮춘다. 완전대체 금융자산의 이자율 비교에서는 이자율이 더 높은 통화가 미래에 절하될 것으로 기대되어야 수익률이 같아진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상수지는 저축-투자, 수출 증가는 환율 하락, 높은 국내 이자율은 원화의 기대절하와 짝을 이룬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한국·미국·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위: %, 2011년 3월말 기준)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현금·예금	45.3	14.0	55.3
주식	20.5	31.5	6.1
채권	4.6	8.2	2.6
펀드	4.4	12.8	3.6
보험·연금	24.5	30.1	28.4
기타	0.7	3.4	4.0

<보기>

㉠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접금융시장보다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 미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분산투자로 투자 위험을 낮추는 상품이 활발히 거래된다.

㉢ 일본의 가계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이 낮고 현금의 보유비율이 높은 것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선호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 미국의 가계는 한국과 일본의 가계보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표의 국가별 금융자산 구성비를 직접금융·간접금융, 분산투자, 유동성 선호, 채무불이행 위험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9 · 2차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구성비(%)이고 2011년 3월 말 기준임을 확인한다.
2. 현금·예금, 주식, 채권, 펀드의 국가별 비율을 비교한다.
3. 직접금융은 주식·채권, 분산투자 상품은 펀드,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자산은 채권과 연결한다.

핵심 근거

㉠ X: 한국과 일본은 미국보다 현금·예금 비율이 높고 주식·채권 비율이 낮다. 따라서 미국보다 직접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보다 직접금융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
㉡ O: 펀드 비율은 미국 12.8%, 한국 4.4%, 일본 3.6%이다. 펀드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상품이므로 미국에서 더 활발히 거래된다고 볼 수 있다.
㉢ O: 일본은 현금·예금 비율이 55.3%로 가장 높고 주식·채권·펀드 비율은 낮다. 저금리에서는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성이 유동성 선호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 X: 채권 비율은 미국 8.2%, 한국 4.6%, 일본 2.6%로 미국이 가장 높다. 채권에는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으므로 미국 가계가 이러한 자산에 더 적게 투자한다는 설명은 자료와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미국 가계가 한국과 일본 가계보다 채권에 더 높은 비율로 투자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이 틀렸으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과 ㉢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③ X: ㉡은 옳지만 ㉣이 틀렸으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은 '㉡㉢'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은 옳지만 ㉣이 틀렸고 옳은 ㉡이 빠져 있으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은 '㉡㉢'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현금·예금 비율만 보고 금융시장 전체를 판단하거나, 주식과 채권의 위험을 같은 종류로 처리하면 틀리기 쉽다. ㉠은 직접금융 여부를 주식·채권 비율로 비교해야 하고, ㉣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채권의 비율을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산 항목을 현금·예금, 주식·채권, 펀드로 나누고 각 문장이 가리키는 항목을 특정한다. 그다음 국가별 구성비의 대소 관계가 문장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옳은 보기만 조합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금융은 주식·채권, 분산투자는 펀드,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과 연결한다.

NoteBase